

##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새 평협회장 선출 추천 공고

새 평협회 회장 선출이 곧 있겠습니다. 많은 추천바랍니다.

### ● 본당 울뜨레아

울뜨레아 월례 회합은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 ● 친교 안내

오늘 미사 후 Father's Day 축하 친교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2019년 성경 공부 - 마르코 복음 여정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강의실 교재비 : \$30

### ● 2019 북미주 성령대회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9시 - 오후 9시 30분

7월 21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 Felician University

262 S. Main St. Lodi, NJ 07644

참가비 : \$40(토: 점심, 저녁, 일: 점심 포함, 강의녹음 USB)

신청 마감일 : 7월 14일(일)

문의 :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

### ● 제37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아

일시 : 7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데마레스트 성당

573 Piermont Rd. Demarest, NJ 07627

###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9일(월)

비용 : 3,500불 가량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 ● 신부님 소식

신부님께서 7월 1일부로 Holy Family Church (Washington Township) 보좌 신부로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체리힐 한인 성당 주임 신부는 계속 유임하십니다.

##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글로리아 구역** : 신명숙, 김성철, 권선용, 권명자, 장한민, 오세환, 안우풍, 홍혜자, 김영복, 강옥화, 장인숙, 장석영, 이경실, 이순덕, 권수희, 김윤선 (16명)

**마틸다 구역** : 박영희, 김영두, 김영숙, 정경재, 정의환, 김희경, 배진형, 배향숙, 이영진, 신용철, 신선희, 김충수, 김영순, 박문수, 이매향 (15명)

**제노베파 구역** : 김재숙, 하국일, 권혜원, 김성문, 김정숙, 이상민, 이수영, 김희동, 김혜정, 임익철, 김부월, 송미라, 김레지나 (13명)

**비오 구역** : 김성욱, 윤모니카, 최영숙, 김광대, 김모니카, 문혜숙, 문만기, 백윤기, 허인선, 노영순, 방효선, 방영애, 최미라, 유명옥 (14명)

**마리아 구역** : 최화숙, 최만섭, 황선동, 황태영, 김글라라, 송현배, 송현숙, 이금주, 이보현, 정광근, 정정자 (11명)

### ● 구역 모임

비오 구역 : 6월 23일(일) 미사 후 문혜숙 베로니카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 알립니다!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비오** 구역입니다.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19. 6. 16 (다해) 제1495호

#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화요일) : 오후 7시 30분

(목요일) : 낮 12시

###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당성가   |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160)   |
| 제1독서   | 잠언 8, 22-31   |
| 화답송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 제2독서   | 로마서 5, 1-5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br>○ 지금도 계시도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
| 복음     | † 요한 16, 12-15  |
| 봉헌성가   | 221번 받아주소서 (216)  |
| 성체성가   | 188번 천사의 양식 (156)   |
| 퇴장성가   | 83번 주 찬미하라 (22)   |



주님제 - 희 주님 온 땅에달 - 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 - 니까

##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 주 일  | 삼위일체 대축일<br>6월 16일 | 성체성혈 대축일<br>6월 23일 | 연중 제13주일<br>6월 30일 |
|------|--------------------|--------------------|--------------------|
| 제1독서 | 권명자 율리안나           | 김정숙 이사벨라           |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
| 제2독서 | 김희동 프란치스코          | 황선동 스테파노           |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
| 봉헌자  | 김정숙, 송미라           | 이상민, 하국일           | 김재숙, 하국일           |

# 오늘의 묵상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일단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하느님 생명과 사랑의 움직임이기에 단순히 하느님 안에서 신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를 그 신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참사랑이란 자신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고, 그에게 가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계시된 사건,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 안에서 발견합니다. 성부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실 때 성자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는 십자가상 죽음으로 당신이 성부께 받은 것을 온전히 성부께 돌려 드리십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 간의 완벽한 상호 증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견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생겨난 공통의 사랑이 성령이시며, 그 성령께서는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물던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도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부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나’와 ‘너’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고 사랑으로 일치하면서도 결코 한 쪽에 치우치거나 개성을 포기하는 일 없이, 서로의 존중 속에 하나가 되어 결국 ‘우리’가 되는 공동체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겸손과 흠숭으로 이 신비를 경축하며, 그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우리들의 기도

##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 우리들의 주일정성

< 6월 9일(일) >

|              |                    |
|--------------|--------------------|
| 봉헌금          | \$557.00           |
| 교무금          | \$750.00           |
|              | 송헌배(1-6), 최미라(4-6) |
| 감사헌금         | \$200.00 황선동       |
| 미사 예물        | \$20.00            |
| <b>Total</b> | <b>\$1,527.00</b>  |